

#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 동향

##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Science in North Korea

송 승 섭(Sung-Seob S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북한의 도서관학 주제 영역      |
| II.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IV.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동향 분석 |
| III.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의와<br>주제영역 | 1. 연구 논문의 형식적 특징       |
| 1.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의            | 2. 연구논문의 주제와 동향        |
|                              | V.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해 보고,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제시하였다. 다음,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 중에서 도서관학 관련 논문을 찾아내어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내용과 형식적 특징 및 그 동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북한 도서관학, 북한 도서관, 도서관학, 연구동향

### ABSTRACT

This study is to firstly investigate a definition and contents of library science in North Korea and then, based on it, to suggest subject provinces of library science in North Korea. Also, secondly it is to find out journal articles of related fields in library science among journals produced in Kim Il Sung University and to analyze the research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trends of library science in North Korea.

Key Words: Library in North Korea, Library Science in North Korea, Research Trends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센터장, 대전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강사(libsong@unikorea.go.kr)  
• 접수일: 2007년 11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 I. 서론

최근 남북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화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북한의 도서관관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자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몇 안 되는 연구자들이 그동안 북한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지만 그 현황과 사실을 밝히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성과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조금씩 늘어나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관계는 최근에 와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교류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본격적인 교류의 시작은 IT분야였지만 이어서 문화 교류와 학술 교류도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도서관계에서도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것은 한양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간에 남북도서관 교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남측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구축한 서지정보와 원문정보를 남측이 학술정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측은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제공한 반면에 북측이 남측에 제공할 것이라는 서지정보와 원문정보는 공개에 따른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한점이 남아 있어 그 활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sup>2)</sup> 따라서 이번 교류협력사업은 한양대학교와 정부 지원이 주축이 된 일방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지원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의 첨단 도서관 기술을 북한에 이식시키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 간의 학술 콘텐츠 및 도서관 관련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빈번한 교류는 단순한 도서관 운영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서관 사업 전반과 도서관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김일성종합대학<sup>3)</sup>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어 사서를 배출하고 있고, 이 대학 학보에 도서관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이 대학의

- 1)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2007.4.19) 등이 '제1회 한-북 도서관 콘퍼런스' 관련 내용 중, 김일성종합대학과 한양대 등의 교류협력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 2) 여기에 관한 주요 내용은 한-북 도서관 콘퍼런스 발표자료(조왕근,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 사업 사례, 2007.4.18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다.
- 3)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에 창립된 북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15개 학부와 10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학과는 주·야간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일부 자료(www.nkchosu.com 등)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도서관학과가 아닌 사회과학계열에 신문도서관학과로 사서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서관관련 논문이 어문학잡지에 실리는 것으로 보아 어문학부에

과학도서관이 북한의 도서관운영에 관한 지도체계에 있어서 인민대학습당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도 북한 도서관학 연구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sup>5)</sup>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먼저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북한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제시한다. 다음,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 중에서 도서관학 관련 논문을 찾아내어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내용과 특징 및 그 동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지금까지 도서관학 및 정보학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 동향을 다룬 논문은 국내외에 적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서관학 관련 연구 동향은 찾아 볼 수 없었다.<sup>6)</sup> 필자도 여러 편의 북한 도서관 관련 논문을 써 오면서, 북한의 교원신문이나 각종 정기간행물 등에서 도서관관련 기사와 기술 내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북한의 도서관학 관련 논문은 많이 볼 수 없었다.<sup>7)</sup> 그러던 중에 북한의 정기간행물 전체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도서관학 관련 논문들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sup>8)</sup> 중 <어문학> 잡지에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3-4년을 수집해 왔다. 그러나 게재 편수가 대단히 적어 연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이 잡지가 계간지로 발행되는데다 <어문학>관련 다른 논문이 훨씬 많이 게재되고 있고, 도서관학 관련 논문은 1년에 3편을 넘지 못하였다. 그마저도 어느 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국내에 입수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중에 어문학 분야는 1997년부터이고 2007년 현재까지 총 16편의 도서관학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중에 다른 잡지도 조사해 본 결과, 자연과학잡지에서 총 4편이 발견되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00년도 이후 도서관관련 논문을 게재한 자연과학잡지에도 '도서관학'이라는 표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편, 2002년 제48권제8호 46쪽 참고), 과거 1973년에 작성된 북한대학현황(중앙정보부 편, 9쪽 참고)에도 도서관학과로 명기되어 있다.

- 5) 북한의 도서관 유형에 있어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연구도서관은 과학도서관에 속해있게 되는데 그 중심에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이 있다.
- 6) 북한의 도서관을 철학적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 중에는 신은경·백진경 등이 2004년 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본 북한 도서관 연구"(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47-252.)가 있다. 이 연구는 J. H. Shera 의 이론을 북한도서관에 대입하여 북한 도서관과 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려 한 것으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지만,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다룬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 7) 북한의 도서관은 정치교육의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신문과 잡지에 매우 자주 등장한다. 그 예를 들면,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잡지인 천리마(2006년 제5호)에 '기술인재 양성의 전당에 꾸러진 전자도서관', 조선여성(2006년 제11호)에 실린 '정보과학기술기지-전자도서관', 아동문학(2002년 제9호)에 실린 '도서관에 가는 시간' 등 다양한 잡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 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초기에는 통합본으로 나오다가, 차츰 발전하여 학문분야별로 세분되어 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역사·법학, 철학·경제학, 어문학, 자연과학(1959년 1월 25일 창간, 물리·지질·컴퓨터·원자력분야 연구 성과 게재) 등 4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었으나 사회과학잡지<sup>9)</sup>에는 관련 논문이 없었다.<sup>10)</sup>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0편의 논문으로 1997년 이후에 최근 10년간의 북한의 도서관학의 내용과 그 흐름을 개괄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외에 도서관관련 논문을 전문적으로 실고 있는 별개의 학술지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sup>11)</sup> 일단 이 학보가 북한에서는 최고 학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술지라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적은 논문량이지만, 남북간간 출판물의 양적 차이나 학문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전제할 때,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sup>12)</sup>

따라서 연구 방법도 겨우 20편을 채운 전체 논문을 다양한 문헌정보학의 주제 영역으로 분류하여, 하위주제 또는 세부주제로 나누어 통계적 추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또한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가능한 전체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 파악과 그들이 도서관학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법론적 선택을 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20편의 논문을 정독하고, 필자가 20편에 대한 초록을 새로 작성하였다.<sup>13)</sup> 초록은 지시초록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내용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정보적 초록의 역할도 일부 살렸다. 이를 통해 가급적 세밀하게 연구 내용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소량의 연구 논문의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의 도서관학의 흐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 
- 9) 북한의 사회과학분야 잡지에는 철학연구, 경제연구, 조선어문, 역사과학, 문화어학습 등이 있다(조선대백과사전 제13권, pp72-3. 참조).
- 10)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아닌 잡지 중에 <전자공학>과, <과학원통보>에도 우리나라의 정보학에 해당되는 관련 논문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를 위해 그 주요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공학>지에는 “문헌정보검색체계에서 색인파일구축의 한가지 방법”(리강철·강성철, 1996년 제6호 pp.21-24.), “정보검색체계 <광명>의 의뢰-봉사형 모형에 관한 연구”(리혁, 1997년 제3호 pp.40-3), “연혁모형에 의한 주제분류형 정보검색 체계의 한가지 실현방법에 대하여”(오준식·리정선, 1997년 제3호 pp.6-8),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종합센터>설계 방법에 대하여”(김정률, 2000년 제5호 pp.40-1), “분류-검색어사전을 이용한 주제분석 작업의 개선에 대한 연구”(리철호, 남순녀, 2006년 제4호 pp.27-9.) 그리고 <과학원통보>에는 “다매체 정보처리체계를 위한 한가지 자료모형”(홍기태, 1996년 제3호 pp.26-8), “정보론적 수법을 이용한 자료분류의 한가지 방법”(강철암, 2000년 제2호 pp.26-8), “정보론적 수법에 의한 자료 분류”(안순란, 2001년 제5호 pp.33-5.) 등이 있다.
- 11) 그동안 도서관관련 남북한 교류 경험에 있는 한국도서관협회나 관련 학회 인사를 통해서도 북한의 도서관학회나 별도의 학회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외에도 북한의 도서관 건축에 관해서는 ‘조선건축’(평양:공업출판사)이 있고,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술혁신’(평양: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 여러 학술잡지가 있지만, 이들이 도서관학 연구자로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했다.
- 12) 북한의 논문 수준을 대외적인 비교를 통해 분석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SCI논문투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13년 간 총 24편의 논문을 투고하여, 1999년 한 해에만 11,010편을 투고한 한국과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에 있어서도 북한은 단독투고 3편과 제1저자 4편을 제외한 17편을 외국인인 제1저자로 투고하고 있었다. 결국 북한이 주도한 논문은 단독투고 3편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이춘근, 2001,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pp.148-151. 참조)
- 13) 20편 중, 어문학잡지 16편에는 초록이 전혀 없어 새로 작성했고, 자연과학 잡지에는 3편은 영어로, 1편은 한글로 짧게 작성되어 있어, 국문초록은 그대로 옮겼으며, 영문 초록은 번역해서 우리말로 옮겼다. 전체 초록 작성 중 북한말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였지만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말로 대체했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학’으로 명명한 학문대상의 범위 또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도서관학과 서지학, 그리고 정보학을 포괄하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학명이 없고, 서지학의 존재는 있지만 도서관학 분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정보학이라는 학문명은 정보공학과 더불어 여러 자료에서 일부 사용되기도 하지만 학명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공식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학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학’으로 제한하였다.<sup>14)</sup>

### Ⅲ.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의와 주제영역

#### 1.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의

북한의 도서관학의 실체가 있을까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일단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관련법이 있고, 학과가 있고, 관련 논문이 있고,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연구자와 사서가 있고, 그 활동 사항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학과에서 배우는 도서관학 교재들이 있다. 소개하면 도서관학기본, 도서관학, 조선도서관사업사 등이 바로 그러한 책들이다.<sup>15)</sup>

북한은 도서관학을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및 그 활동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도서관 출판물의 처리기술 및 사회적 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표현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적 의미와 별 차이가 없다.<sup>16)</sup> 그러면서 사회주의 도서관학의 특성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체계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서관 활동의 과학적 연구와 방법을 연구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곧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학도 민중의

14)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자 최영희는 “도서관 정보에 대한 리해”(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2001. 제46권제1호, p.29.)에서 “도서관정보학, 언어정보학, 문헌정보학, 신문정보학 등 새로운 학문이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 이 책들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2002년 제48권제8호)에 소개된 것이다. 김일성종합대에 있는 목록으로 모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발간하여 도서관학과용으로 10부 이상 소장하여 이용되고 있다(임대순, 1993. 도서관학기본, p.181.; 도서관학강좌 편, 1973. 도서관학, p.245.; 류문한, 1992. 조선도서관사업사, p.161). 이 외에도 <전자공학>지에 발표된 리철호, 남순녀의 논문(“분류-검색어사전을 이용한 주제분석 작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는 “1. 리규학, 일반정보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 89, 2002.; 2. 리철호 등, 분류어검색어사전 1-8, 인민대학습당, 2001.” 등의 형식으로 작성된 참고문헌들이 있었다.

16) 우리나라는 “도서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서지, 봉사, 운영상의 제반지식이나 기법 및 도서관 현상에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사공 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p.87.).

주체사상화와 혁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사실은 북한 연구에서 부딪치는 일종의 공통분모로 보고, 실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도서관학 관련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도서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도서관의 성격과 활동원칙, 도서관망의 조직, 과학기술의 보급과 사회적 학습의 조직” 등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서의 편성, 수집과 보관관리, 도서의 분류와 목록의 조직, 출판물의 이용조직과 채집기지도, 책선전과 보급, 도서관 관리운영의 이론 방법”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도서관학을 “부르조아 도서관학”으로 구분하여 부르며, “도서관 사업을 단순히 책을 보관 취급하는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 책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기계적인 사업”으로 규정하며, 마치 그들 나라와는 달리 도서관학이 학문으로서의 이론과 철학이 부재한 것처럼 차별화하고 있다. 그러한 반면에 학문적으로는 도서관학의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수용하여 “서지학, 도서관사업사, 과학기술통보리론, 문헌학, 교육학, 심리학 등 일련의 학문들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연구된다.”고 도서관학의 본질적인 측면들은 인식하고 있다.<sup>17)</sup>

북한의 도서관학도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반하는 연구 활동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장성과 인접학문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종합과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등 우리나라 도서관학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도서관을 극소수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폄하하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혁명적 수단으로 도서관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학문은 물론 헌법과 법률조차도 김일성주의와 당의 명령 하에 존재한다는 사회체계를 이해한다면, 북한의 학문적 존재 양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2.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

북한의 도서관학은 앞서 본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과 존재 양식의 토대에서 성립되어 있고, 현재 북한의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을 비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도서관학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서관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 영역에 관한 내용 분류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 방법론적 틀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내재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밝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서관학과 도서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17) 여기 단원 3.1에서 인용된 부분은 모두 조선대백과사전 제6권 p.252.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8) 북한의 법은 “당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재열, 2004. 북한의 법체계, 서울: 집문당, p.19.). 따라서 범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지도부의 교시가 있다. 이 말은 법의 종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학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도서관법과 조선대백과사전 등 관련 자료<sup>19)</sup>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1>은 관련 자료 중 주요 항목들을 추출하여 북한의 도서관 사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표 1>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영역

주제 영역	하위주제 항목	
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출판물의 수집, 등록, 분류 등 장서관성과 도서관정리사업	
	출판물의 배열·관리 등 장서구성사업	
	도서관 목록의 작성과 관리	
서고관리	자료보관, 제적, 장서실사	
도서관 이용봉사	열람·대출	대출(관내·관외), 통신대출, 이동문고, 현장봉사, 호상대출, 국제대출
	출판물의 리용 조직사업	책 읽기 지도, 감상문 쓰기, 읽은 책 발표모임, 도서관전시회, 새 책 소개, 학습소조운영
	참고서지봉사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 관, 번역봉사, 문헌복사
	과학기술보급 사업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과학토론회,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내각·중앙도서관지도기관의 역할, 지도·통제, 도서관망의 조직	
도서관 현대화사업	도서관 자동화, 전자도서관	
도서관학 이론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도서관활동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 도서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방법	
도서관사업사	도서관의 역사, 도서관 사업의 성과와 경험	

<표 1>의 내용들은 7개영역 40여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북한의 어느 연구자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필자 자신이 북한 문헌에 소개된 북한의 도서관사업들을 조사하여 북한 도서관학의 대상으로 범주화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북한의 도서관 사업체계와 이에 따른 학문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sup>20)</sup> 그 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볼 때, 북한 도서관은 나름의 발전과정에서 갖게 된 특수한 역사성과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일반화된 문헌정보학적 주제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표 1>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표 1>은 북한의 도서관법의 총칙을 제외한 4개의 장별 구분을 바탕으로 그 외에 내용

19) 장명봉 편, 2006. 최신북한법령집, 서울:북한법연구회, pp.603-5., 조선대백과사전(평양:백과사전출판사, 1998)은 주로 제6권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이 분포되어 있음.

20) 필자의 이전 논문으로 북한의 도서관법을 축조심의하여 북한의 도서관법의 구성체계와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도서관법은 북한의 도서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실무차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스텝 매뉴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송승섭,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60권 제2호 통권 제375호(2005. 12), pp.25-61.). 또한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은 북한 연구의 기본적인 참고 문헌으로 북한의 출판 체계 상 신뢰도가 높은 문헌이며, 이하 다른 문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의 핵심 내용을 근간으로 한 <표 1>의 주제들이 북한 도서관학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을 부가하여 7개의 주제영역을 도출하여 구성한 것인데 그 주제 영역의 범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헌정보학적 분류로 볼 때, 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서고관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도서관경영'으로, 도서관 이용봉사는 '도서관 정보(참고)봉사'로,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정보학'으로, 도서관학 이론과 도서관 사업은 '문헌정보학 일반(또는 문헌정보의 기초)'으로 <표 1>의 내용은 4개의 주제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하위 주제로 있는 분류, 목록의 작성을 상위 영역인 '자료조직'으로 끌어올려 구성하면, 5개의 기본적인 주제 영역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는 통보자료 작성뿐만 아니라 강연회와 토론회도 조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서관이 직접적인 사회교육기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과학기술중시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통신대출, 현장봉사, 번역봉사 등은 사회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서관은 사회봉사기관으로서 각 급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책읽기 지도, 학습소조운영 등 출판물의 이용 및 조직사업을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인데, 특히 독서감상문 쓰기는 김일성이 생전에 그의 저작집을 통해서도 대단히 강조하던 사항이다.

다섯째, 도서관에 대한 지도·통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북한의 도서관이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 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도서관학 이론과 도서관사업사가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영역이 주체사상의 정치사회화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IV.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동향 분석

### 1. 연구 논문의 형식적 특징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내용과 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논문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다음은 1997년 이후에 발표된 북한의 도서관학 관련 연구논문 목록이다.

21)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IFLA의 13개 주제영역(IFLA,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Vol. 2, No 9(November 1976). pp.219-220)보다도 범위가 좁으며,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이용자 연구, 정보원, 정보데이터의 축적과 검색, 조직으로 구분된 UNESCO의 5개 주제 영역[UNESCO, One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for UNESCO. *UNESCO for Libraries*, Vol. 31(march/April 1982). p.62.]과 크기 면에서는 비슷하다.



<표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지에 발표된 '도서관학'관련 목록

저자	출판년도	서명	계재정보
리성남	1997	장서편성수집에서의 전자계산기 리용	제43권제4호 (루계289호:32-36)
박영일 (학사)	1998	도서분류의 과학화, 자동화에 대한 연구	제44권제1호 (루계290호:31-36)
유정심 (학사)	1998	도서관이 사회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제44권제3호 (루계296호:23-27)
최영희 (학사)	2000	도서관 정보에 대한 이해	제46권제1호 (루계314호:29-33)
유정심 (학사)	2000	도서관 정보가 문헌정보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고찰	제46권제2호 (루계317호:40-44)
최영희 (학사)	2000	도서관정보치리의 컴퓨터화는 독자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제46권제3호 (루계320호:40-44)
최영희 (부교수, 학사)	2003	현시기 정보봉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몇가지 문제	제49권제3호 (루계356호:42-46)
김영길	2003	과학도서관 장서실사를 컴퓨터하기 위한 종합적 서지자료기지설계에 대한 연구	제49권제4호 (루계359:35-40)
박영일 (부교수, 학사)	2004	도서관학적인 요구에 맞게 전자도서관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제50권제1호 (루계362호:37-42)
최영희 (부교수, 학사)	2004	도서자동분류를 위한 계층분류사전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제50권제2호 (루계365호:33-37)
김영운 (학사)	2004	중요문장추출법에 의한 본문의 자동요약에 대하여	제50권제3호 (루계368호:27-31)
박영일 (부교수, 학사)	2004	정보조사활동을 합리화, 능률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제50권제3호 (루계368호:42-47)
최영희	2005	도서자동분류를 위한 본문의 형태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	제51권제1호 (루계374호:44-48)
안성득 (학사)	2005	글말에 대한 정보론적 고찰	제51권제4호 (루계383호:18-21)
박영일 (부교수, 학사)	2005	대학도서관 관리운영을 과학화하기위한 방도	제51권제4호 (루계383호:47-52)
최영희 (부교수, 학사)	2007	도서자동분류에서 주제중심 선택을 위한 문장론적 분석방법	제53권제1호 (루계398호:29-33)

<표 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지에 발표된 '도서관학'관련 목록

저자	출판년도	서명	계재정보
김지현	2002	도서관 장서관리의 컴퓨터를 위한 종합적 서지자료기지의 한가지 설계방법	제48권제8호 (루계349호:45-48)
김지현	2002	도서관장서의 등록, 편성 및 제작공정 컴퓨터화에 대한 연구	제48권제9호 (루계350호:36-38)
윤향희	2002	신경회로망에 의한 도서분류의 한가지 방법	제48권제11호 (루계352호:18-21)
채인옥, 장혜심	2006	XML에 의한 전자도서관 자료입력관리체계 실현의 한가지 방법	제52권제3호 (루계392호:41-43)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논문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위의 <표 3>과 <표 4>에 나타난 서지사항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해에 발표된 도서관학 관련 논문량은 최소 1편에서 최대 4편으로 대단히 적게 나타났다. 또한 1999년과 2001년에는 관련 논문발표가 전혀 없었던 해도 있는 만큼 연도별로 편차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 해 2편 정도의 도서관학 관련 논문이 생산되고 있는 데, 그것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어문학>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회에 15편 내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학문분야 보다 연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는 판단된다.<sup>22)</sup>

둘째, 논문 한 편의 분량이 전체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로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5페이지가 가장 많다. 논문을 실측해 보면 모두 10호크기의 글자이며, <어문학>지의 경우, 2단으로 편집되어 44행으로 한 면을 채우고 있고, <자연과학>지의 경우는 1단 44행으로 편집되어 있고, 논문량도 3-4페이지 정도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논문 분량에 있어서는 학보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지의 논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 학술지의 공통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학술지의 성격은 핵심 요약형으로, 심도 깊은 논문을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편의 논문에 발표한 연구자가 모두 11명으로 나타나, 전체 연구자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영일 4편, 유정심 2편, 최영희 6편 등으로 3명이 12편의 논문 저자라는 점으로 보아, 연구 활동이 소수 연구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논문 발표자 11명 중에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연구자는 5명이고, 부교수 직위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북한의 학사는 우리나라의 석사학위(또는 북한에서는 준박사라고도 부른다) 보유자에 해당하며, 교수 직위는 동일하게 본다.<sup>23)</sup> 이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내에서의 도서관학 관련 연구자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24)</sup>

다섯째, 논문의 제목 쓰는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논문은 연구 제목 끝에 “...에 관한 연구”, “... 분석”, “...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형식의 제목이 붙여지는 반면에, 북한의 논문에는 전체 20편의 논문 중에 “연구”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4편에 불과하다. 매우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 “고찰”, “방법” 등의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은 논문의 단순성

2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중 <자연과학>지만 월간으로 발행되고 논문 편수도 40여편이 넘게 게재된다. <역사·법학>지나, <철학·경제학>지는 평균 한 회당 20편정도의 논문을 게재하며 계간으로 발행된다.

23) 북한의 학직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수와 부교수로 나누어지고, 부교수는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교수는 박사학위와 부교수학직 소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또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자격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해당 학위논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음,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논문 검토에 따라 해당 학위가 수여된다(조선대백과사전 제23권, pp562-7.).

2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다른 연구논문(어문학을 비롯한, 역사·법학, 철학·경제학 등)의 저자 중에는 박사과 교수도 전체 논문의 1/5 이상은 된다.

과,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섯째, 논문의 전개양식이 전혀 다르다. 위에 〈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측을 통해 살펴보면,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외에는 제공되는 형식과 또 다른 정보가 없다. 일단, 목차와 초록이 없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따로 없다. 전체 논문이 문단으로만 구별될 뿐 장별 구분 없이 하나의 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된다. 다만 〈자연과학〉지에서만 간략한 지시초록과 참고문헌이 있었다.<sup>25)</sup> 따라서 인용문구에 대한 각 주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인용의 형식은 대체로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또 한 거의 모든 논문의 서두에는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선집의 어록이 인용되는 데, 여기에는 출처가 함께 표시되고 있다. 이것 또한 북한 논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한 해에 발표된 도서관학 관련 논문량은 평균적으로 2편 정도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논문의 분량은 평균적으로는 5페이지 정도여서 연구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편의 논문에 발표한 연구자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5명이고, 부교수 직위자 2명에 불과해 도서관학 관련 연구자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논문의 전개 형식은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외에는 제공되는 형식과 정보가 없어 완성도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연구 논문의 주제와 동향

### 가. 연구 주제와 연구 동향

앞 서 밝혔듯이 북한의 도서관학 관련 논문의 연구 내용과 동향 그리고 그 특징은 국내에 소개된 바가 없었다. 또한 북한의 도서관학은 사회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앞 서 새로운 형태의 주제 영역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목이나 초록, 키워드 등을 대상으로 논문의 주제 영역을 분류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필자가 먼저 전체 논문을 정독한 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새로 초록을 작성하고, 관련 표나 그림의 유무를 살피는 등 참고사항을 정리하여 가급적 북한의 논문 각각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다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20편의 논문 초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5) 논문 전개에 따른 고정된 형식은 없지만 〈자연과학〉 등 과학적 원리를 다루는 논문에서는 1.문제설정 2.실험방법 3.실험결과 및 고찰 4.맺는말 등 본문의 형식을 갖고 있고, 끝부분에 참고문헌과 영문초록, 원고접수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26) 북한의 단행본뿐만 아니라 모든 간행물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표기는 다른 글자보다 진하게 표시되며,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선집에 담긴 글의 인용은 일반적으로 ≪ ≫안에서 한 호 이상 큰 고딕체로 표기된다.

〈표 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지에 발표된 '도서관학' 연구 초록

제목(저자)/초록/참고사항
<p><b>1. 장서편성 수집에서의 전자계산기 이용/리성남</b></p> <p>장서편성 수집사업에서의 복잡성과 산만성을 없애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컴퓨터를 도입하여 과학화, 자동화한다. 독자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 장서의 완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독자수요 분석 프로그램에도 개별 도서관이 구체적 사업과 독자구성, 그들의 과학연구과제와 요구 문헌 분석이 설계되어야 하며, 장서평가 프로그램에는 장서규모와 부문별 구성, 독자들의 요구정형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그림 1. 독자수요 분석 흐름도식, 그림 2. 독자수요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p>
<p><b>2. 도서분류의 과학화, 자동화에 대한 연구/박영일</b></p> <p>도서분류를 과학화, 자동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수학 및 조정확적인 관점과 적용의 필요성과 확고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분류의 본질을 개별대상(P), 구체적 발현상태(C)의 대응관계와의 규칙으로 분류일반에 대해서는 과학, 학문, 분과, 개념체계로 도식화하였다. 도서분류기준으로 도서의 재질적 특성, 내용상 특성, 제작성 특성을 두었다.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동화 분류과정의 논리형 인공지능언어인 PROLOG에 규정된 방식은 과학분류표 지식체계, 분류하려는 도서에 대한 지식, 분류과정에 쓰이는 지식체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도서분류의 과학화, 자동화 실현의 기초적인 문제의 고찰로 향후 도서분류 전문가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p> <p>그림 1-5(본문 설명), 수식사용</p>
<p><b>3. 도서관이 사회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유정심</b></p> <p>도서관이 사회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은 1)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보충하며 2)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는데 있다. 도서관이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은 1) 사회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자로서 국내외의 과학기술자료들의 원자료와 2차, 3차로 가공 자료를 학교교육과 생산활동, 강습과 강연, 발표회, 전시회 등으로 제공하는 것 2) 사회적 학습의 조직자로서의 역할로써 장서의 편성수집과 정리, 보관관리 사업으로 실현되며 책선전, 책이용, 책읽기 조직으로 이루어진다.</p>
<p><b>4. 도서관정보에 대한 이해/최영희</b></p> <p>고유한 의미에서의 정보는 통화된 형태, 문헌형태, 교제형태로 존재하며 도서관에서의 정보는 문헌정보와 운영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정보는 종이, 축소필름, 자기띠, 자기원판 등 전자매체에 기록된 정보이고, 운영정보는 독자수요분석, 도서관이용실태분석, 장서구성상태 분석, 도서회전을 분석 등의 통계자료와 장서보충 및 실사관련 자료, 재정 및 노력관리 자료 등이며 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도서관은 광범한 독자들의 다종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독자수요와 과학발전 추세에 맞게 정보수집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봉사해야 한다.</p>
<p><b>5. 도서관 정보가 문헌정보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고찰/유정심</b></p> <p>도서관 정보는 전통적인 도서관사업에 정보사업을 응용하는 것으로 도서관 자동화 체계 등 각종 정보봉사활동과 관리운영에 걸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문헌정보 체계는 사람들이 문헌정보의 수집, 가공정리, 보관, 검색전달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체계로 도서관을 비롯하여 홍보사, 출판사, 신문사, 책방 등의 문헌정보기관에 속한다. 도서관 정보가 문헌정보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첫째, 도서관이 생산된 문헌정보자료의 흐름을 조정하여 정보이용자들이 문헌정보 자료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헌정보 전달의 특성으로 수집정리된 문헌의 외적 형식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기본 원천인 문헌에 수록된 내용 정보를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한다. 셋째, 도서관은 다른 문헌 정보기관들과 달리 문헌정보 자료들을 보관,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조직하여 사회적 학습을 고무시키고 과학기술 홍보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 정보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적 요구에 따라 그 지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p> <p>그림 1(본문 설명)</p>
<p><b>6. 도서관 정보처리의 컴퓨터화는 독자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최영희</b></p> <p>도서관 정보처리의 컴퓨터화가 독자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가 되는 것은 첫째, 도서관이 귀중한 문헌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사회적인 공동이용을 조직하는 문헌정보 봉사기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화학공업 부문의 연구시간 분석결과 문헌연구 50.9%, 실험 32.1%, 결과분석 9.3%, 계획과 사색 7.7%였다. 따라서 컴퓨터화를 통해 문헌연구 소비시간을 줄이고 실험 등에 시간적 보장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사업이 과학화이다. 사서와 독자사이의 오프가는 문헌정보의 유통과정을 분석하면 이용률이 높은 책들과 현 봉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서가 재배열, 부수의 증감, 이용회수가 적은 책들의 처리 등 합리적 장서조직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도서관 일꾼들을 복잡한 문서 및 계산사무 등으로부터 해방하고 사무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장서실사 작업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 능률에서 10배의 차이가 난다.</p> <p>* 수식 사용</p>

**7. 현시기 정보봉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최영희**

정보봉사는 수요자들에게 해당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단위 시간 당 되도록 빨리 많이 봉사해 주는 문제는 우리 정보사업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첫째 정보 봉사에는 컴퓨터망 봉사가 중요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세계 정보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종합대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인민대학습당, 발명국을 비롯하여 성, 중앙급 기관들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정보봉사망이 형성되어 있다. 둘째, 자료기지 봉사이다. 과거 다른 나라 자료 기지에만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민족어로 된 자료기지 조성과 세계적 자료기지를 수입하여 번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셋째, 질문봉사와 정보분석 봉사이다. 세계적으로 정보봉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 분석기관들이 지향하는 정보분석 봉사결과로는 실태자료, 동향 및 추세자료, 예측자료 등 분석개관자료(또는 3차문헌)들은 과학기술 분야와 경제부문에서 결심채택 지원자료를 만드는데도 발전하고 있다.

**8. 과학도서관 장서실사를 컴퓨터화하기 위한 종합적 서지자료기지 설계에 대한 연구/김영길**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도서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서지자료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장서실사를 위하여 부족한 항목들과 표들을 새롭게 보충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켜주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서지자료 기지를 설계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도서의 유통상태를 반영한 항목으로 자료기호번호, 등록번호, 문헌유형, 보관위치, 열람대출정형, 제작문헌번호를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해당항목이 문헌의 종과 관련된 서지정보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책의 유통과 관련된 서지정보인가에 따라 2개의 구조부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33개의 표를 하나의 mdb로 설계하였다.

그림 1. 부분적인 서지자료기지를 이용한 장서실사 알고리즘

2. 종합적인 서지자료기지에서 표들 사이의 관계

표 1. 서지자료기지

**9. 도서관학적인 요구에 맞게 전자도서관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박영일**

전자도서관을 도서관학적인 요구에 맞게 꾸리는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 기능의 양적 결과와 질적 수준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보수요 충족 건수(정보수요충족률, 정보수요 제기건수), 정보수요 충족도(적중성, 체계성, 과학성), 정보수요 충족에 드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도서관 기능의 양적 결과와 질적 수준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그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보수요제기, 문헌수요제기, 문헌수요 충족, 정보수요충족 4개의 요소공정들의 순차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도서관체계를 구성하는 때 요소 공정들의 기능을 가능한 컴퓨터화 하는 것으로 체계 전반의 흐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요소공정별 컴퓨터화의 내용과 관련된 입출력 관계를 밝힌 다음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림 1. 도서관 기능의 지표체계, 2. 전자도서관 체계의 구성모형

**10. 도서관자동분류를 위한 계층분류 사전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최영희**

이 글은 도서관자동분류에서 도서의 주제분석을 통하여 선택된 주제어들이 어느 분류 항목에 속하는가를 판별하는 수단인 계층분류 사전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첫째, 계층분류사전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 분류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분류의 단일의미성, 명백성, 이용의 편리성과 분류체계의 순차성과 계단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한 분류 항목에 따르는 전문용어들에 대한 수집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된 문헌에 대한 주제분석을 잘해야 한다. 셋째, 분류체계에 따르는 전문용어들의 명백한 의미구분, 분류의 편의성을 고려한 용어의 배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전의 신축성 있는 갱신과 같은 사전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림 1. 분류항목들에 대한 계층 구조 \* 수식사용

**11. 중요문장 추출법에 의한 본문의 자동요약에 대하여/김영윤**

이 글은 정보검색을 위한 본문이 자동요약 수법 가운데서 중요문장 추출법에 의한 자동요약에 대해 고찰한다. 중요문장 추출법은 문장의 중요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단어의 출현빈도를 우선하는데 과학기술분야만 주대상으로 한다. 다음, 본문 가운데서 문장의 위치(서론, 본론, 결론, 제목, 소제목 등)를 이용하거나 일정한 표현(본 연구 논문에서는 ...등)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계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중요도에 기초하여 로동신문 논설문을 중요문장 추출법을 시현하였다. 본문 가운데 대명사의 표현이나 선택된 문장들 간의 연결성 등의 담보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수식 사용

**12. 정보조사 활동을 합리화, 능률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박영일**

정보원천망의 급격한 성장과 개별적 인간이 제한된 문헌 조사 능력사이의 모순의 심화는 정보위기를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조사 활동을 보다 합리화, 능률화해야 한다. 그 효과적인 방편으로 전문검색체계를 개발 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발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원문자료기지를 구축하되 자료구조를 전문검색의 요구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 전문검색의 본질과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검색방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문단어와 연관된 문장들을 찾아내기 위한 자리표 조절방법으로 검색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신속히 수행할 있게 따로 문헌화일을 생성한다. 이미 생성된 문장화일을 기억시켜 다시 이용하도록 질문목록을 작성하는 것 등 전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을 구현해야 한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4호)

그림 1. 문헌발행량의 장성곡선, 2. 동자주파수 증가 곡선, 그림 3. 계층구조

표 1. 동자주파수 증가표 \* 수식사용

13. 글말에 대한 정보론적 고찰/안성득

글말에 의한 정보전달에서 얼마만한 크기의 정보가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은 수량정보에 측정할 수 있다. 수량정보는 글말의 정보량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수량정보는 확률론에 의하여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크기를 계산한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정보량과 불확정성, 확률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림 1(본문 내용 설명) \* 수식사용

14. 대학도서관을 과학화하기 위한 방도/박영일

대학도서관에서는 현대의 새로운 정보가공 유형인 정보연구(정보통계, 정보예측, 정보결핵)사업의 의의를 인식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에 있어 현대적기술 수단을 받아들이는 선차적 문제는 대학도서관 기능지표를 바로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형화 수법 등 수학 및 조정학적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도서관 체계의 최량구성을 원만히 실현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서관의 모든 요소 공정들에 컴퓨터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자도서관의 개발과 이용으로 서지정보 뿐만 아니라 원본정보에 대한 전자열람 봉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대학의 교육과학 발전방향에 따라 교원들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정형을 통계적으로 장악 분석하여 이를 소개하는 것과 인민학습당이나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그리고 국제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의 최신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신속, 정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대학도서관의 문헌정보관리, 2.대학도서관 기능지표체계

15. 도서자동분류를 위한 본문의 형태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최영희

이 글은 과학기술 문헌들의 자동분류를 위한 주제분석의 첫 공정한 형태론적 분석을 통한 주제어 선택과정을 고찰한다. 조선어의 형태론적 분석은 정보학이나 언어학 실천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학 실천에서의 주제분석은 형태단어의 처리에서 급지어로 규정된 형태단어(관형사, 부사, 대명사, 일반용어)들은 비정보적 단어로 취급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형태단어에 대한 형태부 분해 정도에 있어서도 정보적 가치가 있는 단어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 다른데, 도서 자동분류에 있어서는 대부분 토만 분리한다. 이 글에서 고찰한 형식화에 기초하여 형태론적 분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계층 분류사전에 기초하여 일부 재가공할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사전적 단어에 토가 있으면 토와 함께 결합되고 토가 없으면 토를 빼고 결합하는 것이다.

표 1. 조선어로 표기될 경우 형태론적 분석준위 2. 영어로 표기될 경우 형태론적 분석준위

3. 로어로 표기될 경우 형태론적 분석준위 4. 형태단어표

5. 형태론적 분석결과표 \* 수식사용

16. 도서자동분류에서 주제중심선택을 위한 문장론적 분석방법/최영희

도서자동분류를 위한 분장론적 분석은 형태론적 분석을 전제로 하며 형태단어들의 종속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도서의 주제중심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대상을 도서제목으로 한정하였는데 제목에 주제가 집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제중심을 선택하기 위한 문장론적 분석은 주제중심 선택 규칙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과 거품분석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가지 방법의 알고리즘과 구조식을 사례를 들어 시현했다. 시현 결과, 도서자동 분류를 위한 문장론적 분석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형태론적 분석표 \* 수식사용

<표 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지에 발표된 '도서관학' 연구 초록

제목/초록/참고사항

17. XML에 의한 전자도서관 자료 입력 관리 체계 실현의 한가지 방법/김지현

이 논문에서는 전자도서관을 위한 자료수집과 봉사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컴퓨터 방에서 XML을 토대로 하여 논문, 기사와 투고 및 심의, 편집을 실현하는 자료입력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현하였다.

그림 1. 자료입력관리체계구성도(1) 2. 입력부분체계 3. 심의부분체계 4. 수정부분체계

5. 자료입력관리체계구성도(2)

18. 도서관 장서관리의 컴퓨터화를 위한 종합적 서지 자료기지의 한가지 설계방법/김지현

이 논문은 도서관 장서관리를 컴퓨터하기 위하여 도서관 장서의 특징과 등록, 조직, 제적에 이르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고찰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각 필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 번호(자료기지 이름), 컴퓨터 번호(도서의 컴퓨터번호), 도서의 등록번호, 보관위치(room number), 도서의 등록유형, 도서의 제적유형.

표 1. 도서관자료기지의 구분 2.도서관자료기지(국문사회과학일반도서)
3. 장서등록편성 및 제작자료기지
<b>19. 신경회로망에 의한 도서분류의 한가지 방법/윤향희</b>
도서의 분류는 키워드 벡터에 기초하여 공식화되고 신경회로망에 의해 실현된다. 신경회로망은 15개의 입력 유니트, 1개의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의 5개 유니트, 그리고 출력 레이어의 3개 유니트로 구성된다. 그림 1. 도서분류를 위한 신경회로망, 2. 함수의 변화 동태
<b>20. 도서관 장서의 등록, 편성 및 제작과정 컴퓨터화에 대한 연구/채인옥, 장혜심</b>
이 논문은 도서관 장서 관리를 컴퓨터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장서의 등록, 편성, 제작 과정의 알고리즘을 기술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제안한 컴퓨터화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장서관리 과정과 종합서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림 1. 등록대상작성 알고리즘 2.편성공정의 컴퓨터알고리즘 3. 제작대상작성 알고리즘
4. 제작과정컴퓨터화 알고리즘

위의 초록에서 밝힌 연구 내용을 앞서 살펴 본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나타낸 <표 1>에 대입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했다. 2개 이상의 주제로 표현된 연구 논문은 중심주제와 부주제로 나누어서, 부주제는( )로 표시했으며, 부주제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20개의 중심주제와 11개의 부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먼저 도서관학의 전체적인 분포를 중심주제로 볼 때, 도서관 자동화와 전자도서관 등 정보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장서편성수집의 전자계산기 리용’으로부터 시작하 키워드 ‘전자계산기’는 1998년부터는 ‘과학화, 자동화’로, 다시 2000년부터는 ‘컴퓨터화’로 대체되더니, 2004년에 이르러 ‘전자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로 진화해 나갔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과학기술 중시사상과 IT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북한의 ‘도서관학’관련 논문의 주제분포

주제 영역	하위 주제	
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10%(54.6%)	분류 1(4)	장서편성 1(2)
서고관리(9.1%)	장서실사(1)	
도서관 이용봉사(9.1%)	참고서지봉사	자료소개색인(1)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0.0%)		
도서관 현대화사업 60%(18.2%)	도서관 자동화 10(2), 전자도서관 2	
도서관학 이론 30%(9.1%)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1(1), 도서관활동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 3 도서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방법 2	
도서관 사업사(0.0%)		

둘째, 30%에 달하는 도서관학 이론 분야도 도서관정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자동화, 과학화에 힘써야 한다는 철학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전자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위에 두 가지 주제 외에 눈에 띄는 것은 분류와 장서편성인데 중심주제로는 10%에 그치지

만 부주제로는 54.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심주제의 주요 대상이 분류와 장서관리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 중에서도 특히 도서 분류의 자동화나, 자동 요약이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넷째, 학보의 성격상, <어문학>지 보다는 <자연과학>지가 보다 정보학적 주제에 접근해 있으며, 그 주제 범위도 전문화되어 있다. 'XML에 의한 전자도서관' 등 보다 세부적인 주제와 각종 설계방법과 프로그래밍 중심의 논문으로, 전자 공학적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으로나 북한의 논문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의 연구동향을 대체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해, 북한의 간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우리나라 학회지의 주제영역 추이(1996년부터 2004년까지)를 조사해 보았다.<sup>27)</sup> 모두 9개영역에서 조사한 결과 중에 북한과 비교가 가능한 부분을 나타내면, 정보학(36.3%), 도서관운영(16.1%) 자료조직(14.8%), 문헌정보학기초(12.9%), 참고정보봉사(11.9%)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용어 선정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우선 순위면에서는 북한의 도서관학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개념의 주제영역으로 대입해 보면, 북한의 정보학(60%), 문헌정보학의 기초(30%), 도서관경영(5%), 자료조직(5%)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 남한에 비해 정보학의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고, 참고정보봉사 분야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중심 주제에 깊이 연결된 부주제 면에서 볼 때, 자료조직과 도서관 경영의 합이 63.7%에 이른다는 점에서 정보학의 주요 대상이 자료조직과 도서관경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 동향은 도서관자동화와 전자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어 정보학적 접근이 강해지고 있고, 정보학의 주요 대상으로는 장서개발/관리 등 도서관 경영부문과, 분류, 색인 등 자료조직 부문이 주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학적인 요구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남북한간의 연구동향 추이는 정보학이나, 참고봉사 부문에서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우선순위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학적 접근이 연구 동향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일부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정보학'은 우리나라와 같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의 학문과 교육이 군사부문과 경제부문과 병행하여 발전한 것에 따라 정보학적으로 경도되고 있으나, 아직 학문의 전문성이 심화되지 않아 세부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7) 우리나라 90년대 중반이후의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추이 분석을 위해 다음 자료의 표의 일부를 합산해서 백분율로 계산한 것임(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p.63.)



### 나. 연구 논문의 질

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논문 분야별로 국가별 평가 기준인 SCI, SSCI, A&HCI의 등재율 등 각종 평가도구로 산정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일부 논의된 것처럼 북한의 논문은 전반적으로 아직 국제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4.1에서 살펴본 연구 논문의 형식적 특징에서 이미 분석된 것처럼 <어문학>지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수준은 논문의 형식적 조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질적 수준도 높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다양하지 못하다. 앞에서 분석된 것처럼 도서관자동화 등 일부 분야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 또한 다양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탐구보다는 총론식 흐름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일부 실용적 연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참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20편에 논문에 그림 39개, 표 11개, 수식 8개가 사용됨으로써 평균 논문 1편당 그림 2개와 표 0.6개, 수식 0.4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은 알고리즘과 본문 설명 그림, 모형 및 구성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내의 연구 논문과 비교할 때 많은 양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의 논문 한편의 길이가 평균 4-5페이지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림, 표, 수식의 사용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 분석이 거의 없는 반면에 함수식 등 수식 적용이 8편이나 되는 것은 북한이 기초연구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의 기술 방식도 연구 논문과 관계없는 김일성 부자의 어록 소개나, 변증법적인 과학적 논의보다는 의도성을 갖는 설명 위주의 내용 등이 많이 있어 논문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자별로 2편 이상을 발표한 사람은 4명뿐으로 전반적인 연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별로 살펴보면, 박영일의 경우에는 도서분류, 전자도서관, 대학도서관 관리운영, 정보조사활동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유정심은 도서관 정보와 도서관의 위치와 역할로 도서관의 철학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또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최영희는 도서관 정보, 독자 봉사, 정보봉사, 도서자동분류 등 다양한 주제에 접근했으나, 자동분류에 관한 논문이 3편으로 정보학분야에 주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외도 학위 소지자는 아니지만 김지현은 도서관장서관리의 컴퓨터화관련 주제로 2편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하지 못하고, 기술 방식의 과학성도 부족하지만 수식과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사용 등 일부 기초과학 부문의 강점이 연구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연구 인력의 수나 질에서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먼저, 북한에서의 '도서관학'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북한의 도서관학의 주제 영역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다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발행하는 학보 <어문학>지와 <자연과학>지에서 도서관학 관련 논문을 찾아내어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 내용과 특징 및 그 동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도서관학'을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및 그 활동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도서관 출판물의 처리기술 및 사회적 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도서관학의 특성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체계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서관 활동의 과학적 연구와 방법을 연구한다."고 함으로써 도서관학도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을 위한 도구로써의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북한의 도서관의 주제영역은 북한의 도서관법과 조선대백사전의 도서관관련 항목을 조사하여 도출한 결과, 출판물의 수집과 관리, 서고관리, 도서관 이용봉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도서관 현대화사업, 도서관학 이론, 도서관사업사 등 7개 영역과 이에 따른 40여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논문의 형식적 특징을 보면, 1) 한 해에 발표된 도서관학 관련 논문량은 평균적으로 2편 정도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논문의 분량은 평균적으로는 5페이지 정도여서 연구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20편의 논문에 발표한 연구자가 모두 11명으로 나타나, 전체 연구자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논문 발표자 11명 중에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연구자는 5명이고, 부교수 직위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2명뿐이어서 김일성종합대학 내에서의 도서관학 관련 연구자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논문의 전개 형식에 있어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외에는 제공되는 형식과 또 다른 정보가 없었다. 목차와 초록이 없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따로 없이 전개되어 논문의 형식적 완성도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도서관학 연구 동향은 도서관자동화와 전자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어 정보학적 접근이 강해지고 있고, 정보학의 주요 대상으로는 장서개발/관리 등 도서관 경영부문과, 분류, 색인 등 자료조직 부문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남북한간의 연구동향 추이는 정보학이나, 참고봉사 부문에서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우선 순위면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학적 접근이 연구 동향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보학'은 우리나라와 같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도서관학의 연구자는 다양한 주제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론의 사용도 있어서도 미숙하며, 기술 방식의 과학성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수식과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사용 등 일부 기초과학 부문의 강점이 연구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 인력의 수나 질에 있어서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도서관학은 북한의 다른 학문 분야보다도 논문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수나 연구자의 수준 역시 다른 학문 분야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북한의 도서관학은 당의 유일체계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며,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도서관학 관련 논문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논문이 수집되고, 남북한의 도서관간의 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북한의 도서관학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